

국내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컨소시엄 구성 1조2000억원 투입 ... 신안에 3MW급 70여기 계획

전라남도 신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다.

동양건설은 한국남동발전과 동국S&C, 유러스에너지재팬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7월10일 신안군과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공동 사업개발 협약(JDA)을 체결한다.

컨소시엄은 신안군 해상에서 6km 떨어진 오도 일원에 200MW급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3MW급 풍력발전기 70여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르면 2009년 건설에 착수해 2014년 준공 및 가동할 계획으로 연간 16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82G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신안군 비금도 및 자은도 일대 해상은 수심이 얇고 양질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 해상 풍력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2008년 11월 신안군에 24MW급 규모의 세계최대 추적식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9>